

# 해운조합 항만상용화법 제정촉구 성명 발표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시 물류비 절감 기대

한국해운조합(회장 박홍진)은 11월7일 제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항만노무공급체제 상용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전 항만노무공급체제는 항운노조가 항만근로자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항만 생산성 향상의 장애요인이 될 뿐 아니라 항만이용자인 선사 및 하주의 물류비 경쟁력에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대해 한국해운조합은 항만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하여 항만물류기업이 하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전환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과 관련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성명서

우리 내항해운업계는 그동안 항운노조·하역업계·정부가 합심하여 항만에서의 평화적 노사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내항해운의 건전한 발전은 물론, 국가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국민경제에 기여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북아지역 각 항만의 화물유치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고 항만하역이 급격히 기계화 및 현대화되고 항만화물이 규격화 또는 자동화되는 등 항만물류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내항해운업 종사자 일동은 항만이용자로서 지난 5월 6일 항만관련 노사정이 체결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노·사·정 협약”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내항해운업계는 우리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노무공급체제를 개편, 항만물류기업이 하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상용화체제로 시급히 전환되기를 촉구합니다.
2. 내항해운업계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지원하고 원활한 추진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관련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내항해운업계는 항만이용자와 항운노조가 상생의 터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운노조가 “노사정 협약”체결 당시의 정신을 살려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4. 아울러, 내항해운업계는 항만노무공급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항운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사정 협약”상의 노조원 근로조건 보장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